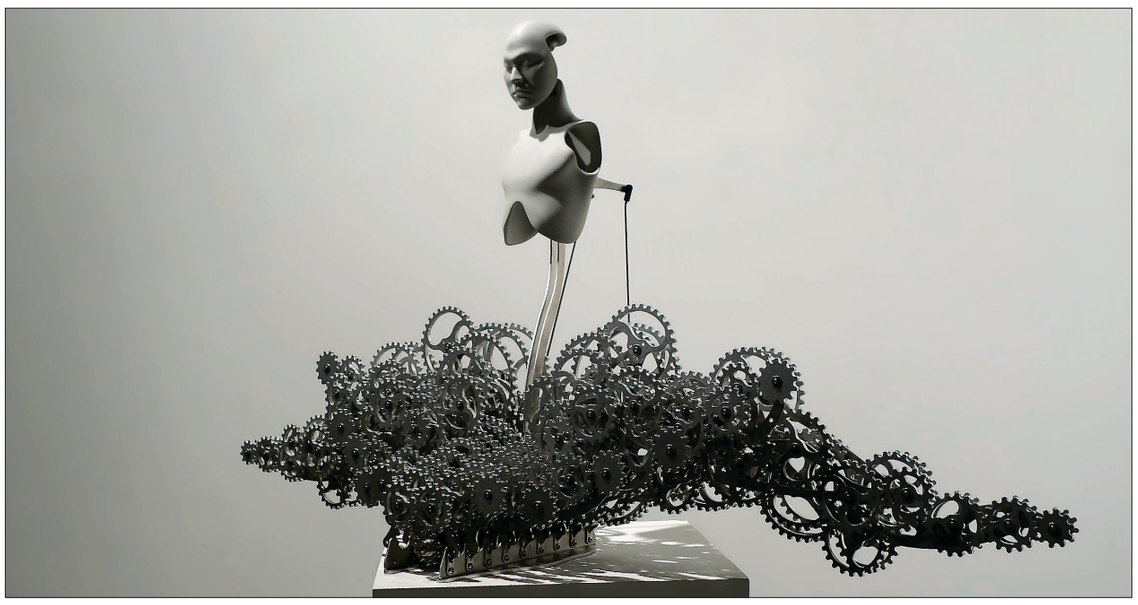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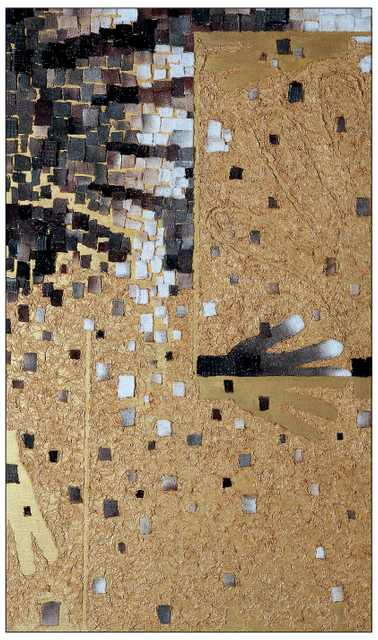
시방삼세 불국토 '예술 법석'으로 장엄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
불교미술작가 12명 초대전

8월 18일까지 청담 갤러리 '민'
過·現·未 불교미술 한 자리
정경연·신진환 등 12명 참여
각 4~5점씩 개인작품 선보여
"다양한 양식 불교미술 알릴 것"



아트플랫폼 주인공의 특별전 '삼세불'서 첫 번째 테마 '미래불'에 나서는 왕지원 작가의 작품 'Mechanical Buddhahood L-urethane'.



정경연 作, '하모니 08-89', 91.0x72.7cm _30F, Mixed Media&Technique on Canvas

부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과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순간, 시방삼세(十方三世)에 존재한다고 한다. 그 각각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부처님은 어떤 모습과 현상으로 나투시는가. 이러한 문화적 상상력에 따라 부처님과 그 가르침의 모습을 예술로 승화한 불모들의 전시가 찾아온다. 과거·현재·미래의 불교 미술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예술 법석이다.

협동조합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삼세불전(三世佛展)'을 8월 18일까지 서울 청담동 갤러리 민에서 개최한다. 불교미술의 전통성을 올곧게 살려 미래 불교미술의 발전을 도모키 위해 마련된 전시다.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부처님이 시방삼세에 계신다'는 말은 시간 및 공간적 경계의 공(空)함을 일깨워준다. 중생의 업이 과거에서 현재로, 또 미래로 이어진다는 연기법의 가르침이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의미에 착안해 불교미술의 과거·현재·미래를 '전통' '퓨전' '모던'으로 나눠 부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시에는 12명의 불교미술 작가가 참여, 현대미술부터 불교미술·조각·단청·진영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7월 10~22일 열리는 '미래불' 테마전에는 정경연·신진환·박일선·왕지원 작가가 참여한다. '장갑작가'로 유명한 정경연 작가(홍익대 미술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도 역시 '장갑'을 오브제로 '하모니'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이수자 신진환 작가는 지난해 11월 개인전서 선보인 '미륵부처님 오시다' 등 약 4점을 전시한다. 박일선 작가는 '1025 독도 Dokdo of Korea' 등 단청산수화 작품을, 왕지원 작가는 'Mechanical Buddhahood L-urethane' 등 조소 작품을 소개한다.

이밖에 △명진 스님·박명귀·김지원·서칠교('현재불' 8월 1~9일) △호종현·김석곤·이문희·주성진 작가('과거불' 8월 1~9일)가 참여한다.

이경민 아트플랫폼 주인공 실장은 "과거에는 불교미술 작가들이 불사 위주로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작품세계에 따라 불교적인 테마를 소화하는 방식이 많이 다양해졌다"면서 "다채로운 양식의 불교 미술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문화포교를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트플랫폼 주인공은 여러 사람이 이로운 일을 함께 진행하는 '열린 예술 모임'이다. 불교미술포럼 '주인공다방'을 통해 가치와 정신성을 확립하고, 이후 온라인플랫폼 및 산사미술제 등 다양한 전시를 통해 불교미술의 중흥을 도모했다. (070)4693-4686 박아름 기자

백제 왕흥사, 정유년에 다시 만나다

10월 9일까지 국립부여박물관서 특별전
사리기·대형 치미 등 9,800여점 공개

577년 정유년 건립된 백제 왕흥사. 이곳서 출토된 유물 9,800여점이 1440년이 지난 2017 정유년에 우리 후손들 곁으로 돌아온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부여군·국립부여박물관은 특별전 '백제 왕흥사, 정유년에 창왕을 다시 만나다'를 7월 18일~10월 9일 국립부여박물관 기획전시관에서 공동 개최한다.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리에 자리한 백제 왕흥사는 577년 정유년에 건립된 사찰로, 일제강점기에 왕흥(王興)명 기와가 수습되면서 왕흥사터로 밝혀졌다. 2001년 사적 제427호로 지정됐다. 이번 전시는 왕흥사지 창건 144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특별전으로, 백제 왕실 사찰인 왕흥사의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왕흥사지 사리기(사리를 담는 그릇)를 포함해 9,800여 유물이 전시된다. 또한 발굴 당시 숨겨진 이야기와 유물 복원작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소개된다.

세부적으로는 △1부 '위덕왕, 왕흥사를 세우다'(왕흥사 소개, 특수·명문기와, 왕흥사지 가마터 등) △2부 '위덕왕, 사리기에 마음을 새기다'(사리기 및 사리장엄구 등) △3부 '왕흥사, 고려시대로 이어지다'(왕흥사 운영 과정) △4부 '왕흥사의 역사를 새롭게 쓰다'(왕흥사지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 사리기 및 치미의 복원 연구 과정)로 구성 및 전시된다.

특히 전시 유물 중 사리기와 대형 치미가 주목된다.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은 2007년 발굴된 것으로, 청동으로 만든 원통모양 상자 속에 작은 은제 항아리를 담고 그 안에 다시 금제 병을 넣어 삼중으로 사리를 봉안한 유물이다. 가장 바깥의 청동 상자 표면에는 창건연대와 목적 등을 기록한 29자가 새겨져 있다. 이를 통해 위덕왕(창왕, 재위 554~598)이 죽은 아들을 위해 577년에 왕흥사를 건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형 치미는 높이 123m로,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치미로 알려진다. 마름모꼴의 꽃장식인 연화문, 구름문, 초화문 등의 화려한 문양과 하늘로 날카롭게 솟은 꼬리 부분이 마치 새가 비상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단순한 지붕장식에도 화려함와 위엄을 갖춰 백제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을 받는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파손된 채 수습된 118개 조각을 보존 처리하고 3차원 입체 영상(3D) 기술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복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복원 영상과 사진 자료가 함께 공개된다.

2000년부터 15차례에 걸쳐 왕흥사터를 발굴 조사하고 있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특별전이 왕흥사를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현재까지 발굴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치미로 알려진 백제 왕흥사 대형 치미.



2007년 발굴된 사리기 일괄(보물 제1767호).

붓다의 마음으로 '깨달음'이란 꽃이 피길…

조재익 작가 17번째 개인전
'옛길-꽃이 피다 2017'



붓다들-꽃이 피다, 162X372.6cm oil on canvas 2017.

석굴암 불상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의 불두가 흩날리는 꽃잎처럼 주위를 장식한다. 세상 모두가 평화롭기를,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다라의 불두들과 수행승들의 모습을 한데 모았다. 조재익 작가의 작품 '붓다들-꽃이 피다'이다.

조재익 작가는 7월 19~25일 서울 인사동 토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17번째 개인전 '옛길-꽃이 피다 2017'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 '붓다들-꽃이 피다'를 비롯해 '붓다-꽃이 피다' 시리즈 및 '옛길-꽃이 피다' 시리즈가 한꺼번에 공개된다.

조 작가는 "소장하거나 채집했던 붓다 이미지에 매화, 목련, 장미 등을 그려 존재가 피어나는 순간을 표현했다. 너, 나, 우리, 이웃 등 모두가 붓다 아니겠는가"라면서 "모든 깨어난 이들이 발견하고 걸었던 옛길에 지금, 당신(관람객)의 꽃이 피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재익 작가는 홍익대 미술대학 서양화과 및 동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했다. 현재까지 17회 개인전 및 70여회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MBC미술대전 특선(1회) 및 입선(3회)·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1회) 및 입선(5회)·동아미술제 특선(1회) 및 입선(2회)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보유한다. (02)734-7555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미소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